## 정읍보건소, 건강코너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 터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코너를 운영,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소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기 위해 '생활 터로 찾아가는 건강코너(이하 건강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건강관리가 소홀하거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파악토록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철저한 건강관리를 통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건강코너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4개 기관으로도, 정읍농협 연지동과 상동지점, 우체국, 시기동 로컬푸드이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검진을 통해 개인별 건강관리 위험요인을 확인해주고 이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이나 당뇨질환자 상당수가 자신의 질환도 모른 체 생활하다 합병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각종 지역 행사장과 기관, 단체,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선은리 횡단보도 신설을"

## 주민들 LPG충전소 인근 중앙분리대 절선 요구… 군 교통사고 우려 난색

부안 선은리 일부 주민들이 부안LPG충전소 인근에 횡단보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안군청, 부안경찰서를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세영(70·부안LPG충전소)씨 외 800여 주민들에 따르면 "2011년 최초 도로설계도면에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지난 2013년 11월경 준공단계에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이 곳을 이용하는 택시 및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곳은 새만금 아파트, 상원아파트, 혜성병원, 등 5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선은리에 거주하며 망기산과 선은 천 산책로를 이용, 많은 군민들이 걷기운동을 하며 다니는 곳인데 반대편 인도를 갈려면 700m를 U턴해야 갈 수 있어 노약자, 장애인, 택시 운전자들은 중앙분리대 절선 및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석(부안개인택시조합장)씨는 "부안LPG충전소를 이용하려고 약 700m를 U턴해 진 출입 할 경우 경제적 손실과 시간낭비만 가중하게 된다며 중앙분리대 절선을 부안군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안군 관계자는 "선은리 부안LPG충전소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빈번해지고 보행자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중앙분리대 절선 및 횡단보도 설치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보건소는 지카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진 흰줄숲모기 유충을 방제하려고 인공연못 및 폐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선제 방역을 4월 말까지 집중 방역을 한다.

# 부안군보건소, 지카바이러스 방역 돌입

### 흰줄숲모기 유충 집중방제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지카바이러스 감염된 직장인 L(43)씨가 전남 광양에서 나와 부안군 보건소(소장 김달천)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관내 유입에 대비 총력 방역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지카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진 흰줄숲모기 유충을 방제하려고 인공연못 및 폐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선제 방역(유충구제)을 4월 말까지 집중 방역을 한다.

흰줄숲모기는 알의 형태로 월동하고 봄(3월 말)에 알에서 깨어나 유충으로 부화돼 5월부터 성충모기가 되는 생활사를 거치기 때문에 유충단계에서 방제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기는 죽기 전까지 약 13회의 알을 낳고 한 번 알을 낳을 때 약 155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한 마리의 유충을 제거하면 수천 마리의 모기를 방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흰줄숲모기는 수면과 맞닿는 부분에 알을 낳으므로 적은 양의 물만으로도 부화하기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 집 주변에 방치돼 있는 버려진 용기나 물 제거, 화분이나 받침에 고인 물은 버리고 집 주변의 풀은 짧게 관리하는 등 모기 방제를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달천 부안군 보건소장은 "지카바이러스 감 염병은 현재 백신이 없기 때문에 모기방제가 질병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며 "야외활동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고 기피제를 사용해 모기에 물리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는 외국에서 김제로 이주한 여성들이 전문 제빵사로 근무하고 있는 '베이커리 앤 카페 이음'과 함께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 김제시 이주여성과 해외관광객 유치

### 벽골제 등 백제문화 · 근대유산 연계 관광상품 개발

김제시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에서 김제로 이주한 여성들이 전문 제빵사로 근무하고 있는 "베이커리 앤 카페 이음"과 함께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세일즈콜 행사에서 이들이 만든 빵과 쿠키를 손수 작성한 편지와 함께 기념품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여행관계자들은 이주여성의 생활모습과 함께 벽골제, 금산사, 새만금 그리고 백제문화와 근대유산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일본 여행객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인접지역 여행상품 코스에 김제 방문을 반영하여 적극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특히 이태영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아주 특색있는 스토리텔링형 상품으로 가치가 있으며, 해당 자료를 일본 뉴스레터를 활용 3,300여개 여행사 등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커리앤카페 이음'은 김제에서 나오는 쌀과 밀, 신선한 농산물로 건강한 빵과 음료를 생산 판매하며 다른 베이커리처럼 세련된 모습은 아니지만 단백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김제시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흑미식빵, 고구마빵, 원두쿠키, 수제 초코파이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gtg.or.kr)에서 주문도 가능하다. 매장에 방문하면 직접 마카롱, 케익 등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김제=곽노태기자

# 부안군, 농어촌 주택개량대상자 추가모집

부안군은 노후한 불량주택 개량과 저소득층·귀농귀촌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인 등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코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으로 연면적 150㎡ 이하 주택 신축은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 부분개량은 사업실적확인서에 의해 주택 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대출금은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건축공사 진행 중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을 제출하면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하기가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5년 간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는 신축은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2억 원까지 소요비용에 대한 융자하기가 가능하고 무주택자의 토지 구입비용을 최대 7000만원(대지면적 660㎡이내)까지 융자해 주고 있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대상자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군민과 소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제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높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김제시와 한국장학재단은 22일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 본부에서 김제시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김제 지역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손쉽게 지원받도록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지원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읍옹동면 산불예방 캠페인

옹동면은 지난 21일 봄철 산불예방 및 홍보를 위해 남·녀 의용소방대원과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면 소재지 일원에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면 직원과 옹동치안센터(센터장 박태훈), 칠보농협 옹동지점(지점장 김종택), 남·녀 의용소방대원(대장 왕운호, 차영회), 산불진화대원(감시원), 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청명·한식 등에 대비, 주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이날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 전역에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을 걸고 ▲논·밭 태우기 등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산행 시 화기물질 소지 금지 등의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관용차를 이용한 홍보방송과 함께 산불예방 요령 등을 담은 전단지를 배부했다. 한편 면은 이와 산불감시원 7명을 취약지에 고정 배치해 순차활동을 펼치는 한편 이장과 마을담당직원이 매일 이상 유무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